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5. 16. / (총 9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홍 승 령 김 영 은	전 화	044-202-3575 044-202-380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 상황 및 조치 현황, ▲자가격리자 현황 및 관리 방안, ▲생활 속 거리 두기 홍보 및 점검 등 실적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 상황 및 조치 현황, ▲생활 속 거리 두기 홍보 및 점검 실적, ▲자가격리자 현황 및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례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한 후 발생한 첫 번째 집단감염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생활과 방역의 조화를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뼈아프게 느끼게 해준 사례라며,
 - 역학조사 시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하지 말고, 서울 이태원 방문자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보건소나 1339에 연락하셔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강조하였다.
 - 또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긴장해야 할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시설의 출입은 삼가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생활 방역수칙을 실천하기를 당부하였다.

1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발생 상황 및 조치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발생 상황과 조치 현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 교육부는 연휴기간(4.24~5.6) 동안 원어민 강사와 교직원의 이태원 지역 방문 현황을 파악하고 진단검사 실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 또한 서울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과 관련하여 일부 학생이 관계됨에 따라 등교 1주일 전부터 실시되는 자가진단 설문을 통해 고3 학생의 이태원 지역 방문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 한편 국방부는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으로 인한 확진 환자가 전국에서 발생함에 따라 5월 4일 전후 입영한 장병을 대상으로 이태원 일대 방문 경력을 조사하고 있다.
 - 4월 29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을 방문한 장병은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식별된 대상자들에게는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4일간 부대 내에서 격리한다.
 - 자진신고를 통한 대상자 식별과 진단검사, 격리조치는 향후 5월 20일까지 입영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진단검사가 5월 8일 1,905건에서 5월 14일 5,828건으로 급증하는 데 따른 이용자 대기시간 감축 및 보건소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보강하였다.
 - 5월 13일 용산구에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어제 서초구에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였으며, 의사협회 협조를 통해 강남구 등 18개 자치구에 총 52명의 의료인력을 지원하였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클럽 등 시설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또는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832명으로 전국 254개 반을 구성해 심야 시간(22시~02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5월 15일에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으로 클럽, 감성주점 등 전국 10,928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시설 중 7,668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 영업 중인 3,260개소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8건, ▲발열 체크 미비 7건 등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2 자가격리자 현황 및 관리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현황 및 관리 방안을 점검하였다.
- 5월 15일 18시 기준, 2,854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2,873명이 해제되어 자가격리자는 총 36,926명이고, 이 중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096명,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1,830명이다.
 - 어제 국내 발생 신규 자가격리자는 757명이며, 이 중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과 관련해 서울 298명, 경기 200명, 인천 157명 등 수도권 지역의 신규 자가격리자 비율이 높았다.
 - 또한 해외 입국자 등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임시 생활시설 101개소 2,865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5월 15일 기준 758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안심 밴드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관리 방안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인 격리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소재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자가진단하는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을 개발해 3월 7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 5월 15일 기준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인 격리자는 36,168명이며, 자택 격리자의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설치율은 92.3%이다.
- 또한 4월 27일에는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도입하였다.
 - ICT 기술을 활용하여 안심밴드 도입하고, 일정 시간 동안 핸드폰 움직임이 없으면 앱을 통해 알림창이 뜨는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하였다.
 - 5월 15일에는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한 사례가 2건 발생하여 이 중 한 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였고, 현재까지 총 안심밴드 착용 건수는 43건이며 22명이 해제되어 현재 21명이 안심밴드를 착용 중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 대상자는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지 말고 정부의 안내에 따라 수칙을 잘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자가격리자 이외에 일반 국민께도 “당분간 계속될 코로나19와의 불편한 동행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생활 방역 수칙을 완전하게 실천”하자고 강조하였다.

3 생활 속 거리 두기 홍보 및 점검 등 실적

-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홍보 및 현장점검 실적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그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개인방역 기본 수칙 등 주요 메시지를 홍보하였다.
 -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 두기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 수칙을 일상생활 속 모습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대표 영상을 제작하여,
 - 지상파·종편 등 TV광고, 버스·지하철 등 옥외매체와 긴급재난문자 62회, TV 자막방송 6회, SNS 홍보 872회 등을 활용해 확산을 추진하였다.
 - 최근에는 방역 사각지대 관리를 위해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에게 강제 출국 걱정 없이 코로나19 무료검사를 실시한다는 안내도 함께 홍보하고 있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 점검단을 구성해 전국 826개 학원·독서실, 454개 PC방 등 총 29,607개소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320개소에 대하여 행정지도 하였다.
 - 전통시장(점검대상 82개 중 행정지도 50건), PC방(점검대상 454건 중 행정지도 53건) 등 전통시장, PC방을 비롯해 노래방, 학원 등 시설에서 방역 수칙 준수가 미흡하였다.
 - 인천시는 5월 15일 PC방에 영업 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경기도는 성남시의 원어민 강사 학원 등 144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5.15~22)한다.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5. 확진 환자 격리해제 시 생활수칙
6.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9. 마스크 착용법
10.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붙임1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붙임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